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5.21(금) ~ 22(토) | www.dmzforum.or.kr

[평화운동 협력세션 Ⅲ-3 : 아태지역 지방정부 평화 ODA 플랫폼 구축의 의의와 역할]

박아가페사랑 평화공공외교협력단

평화운동 협력세션 Ⅲ-3 세션은 "아태지역 지방정부 평화ODA 플랫폼 구축의 의의와 역할"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해당 세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방정부(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 of Asia Pacific)' 중심의 '평화 ODA' 이행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UN SDGs 시대에서 주요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는 '지방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이행의 의미와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아태지역 내 '평화 ODA' 사례 공유 등을 중심으로 UCLG ASPAC(The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Asia Pacific) 내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위원회' 설립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마무리되었다.

해당 세션은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축사로 시작해,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의 쉬레드 사무총장의 환영사로 이어졌다. 이후에는 좌장인 마영삼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사무총장의 진행 아래, 발제자로는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버나디아 텐드라데위 세계지방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사무총장, 문경연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국제인문사회학부 부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에밀 엘라스띠안또 다르닥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부지사, 헤만티 구나세케라 스리랑카 지방정부 연맹 대표, 민자 양 레이먼드 르마이어 국제보존센터 센터장이 참여했다.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은 'HDP(Humanitarian-Development-Peace) 넥서스와 평화 ODA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HDP 넥서스의 개념, 국제사회에서 해당 개념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HDP는 위기와 갈등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평화 구축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방정부가 개발협력 사업 과정의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가 사업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평화 ODA의 실현과 지자체의 선택 방식 그리고 다년 예산 집행구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HDP 넥서스 위원회를 통한 평화 ODA 파일럿 프로젝트 발굴과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마무리했다.

버나디아 텐드라데위 세계지방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사무총장은 전 세계의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지속가능하고 평화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제안하며, 특히 경기도의 사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도자들의 공약 이행 의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5 ZERO 비전 즉 1) 불평등 제로 2) 범죄, 재난, 폭력 제로 3) 빈곤 제로 4) 오염, 온실가스 배출 제로 5) 노관용, 차별 제로를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SDGs 17개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HDP위원

회를 이미 설립하기로 했으며 지방정부가 그 과정에서 재정을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등 HDP 사업을 추진하고 기획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문경연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국제인문사회학부 부교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ODA'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지방정부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한 후, HDP의 실질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 정부의 지원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HDP 넥서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정부의 협력, 국별 협력, 그리고 지방 정부의 전문성을 이끌기 위한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에밀 엘라스띠안또 다르닥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부지사는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 사업의 문제와 복원력을 가진 개발협력사업을 진행시키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즉, 지방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하고 이를 중심으로 유엔 중심의 플랫폼과 지방 정부의 사업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헤만티 구나세케라 스리랑카 지방정부 연맹 대표는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해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위기 상황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경기도가 이번 세션을 마련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 국가 간 경쟁관계와는 달리 지방정부 간에는 협력의 요구가 더 많아지고 있으며 상호 학습에 대한 구도 또한 형성되고 있기에, 이러한 플랫폼이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민자 양 레이먼드 르마이어 국제보존센터 센터장은 인도적 구호 사업에 정치적 고려와 판단을 배제해야 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며 비록 정치 문제와 결부되어 있지만,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데에 문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문화 교류가 평화 구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음식, 보건, 춤, 음악, 영화 등의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또한, 사람 간의 교류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조하면서 마무리했다.

공식 세션 이후에 버나디아 텐드라데위 세계지방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사무총장이 UCLG ASPAC 내 'HDP Nexus 위원회' 설립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며 세션이 마무리되었다. 오늘 채택된 선언문에는 1) UCLG 회원국 사이의 협력과 접근 방식 도모 2) 역내 평화 구축 3) 인도주의적 평화 구축 4) HDP 넥서스 접근방식 발전 5) 지자체들의 의무와 책임 정의 등 HDP Nexus 위원회 취지, 향후 역할, 방향성이 담겼다.

<핵심 키워드>

#아태지역 #지방정부 #평화ODA #HDPNexus위원회 #인도적지원-개발-평화연계위원회 #선언문